

원저

黃帝內經靈樞에서 살펴본 八會穴의 意義와 形成體系에 대한 研究

이봉효 · 문진영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Abstract

The Study of Meaning and Formation System of *Pal Hyue Hyul* through *Hwangjaenaekyông*

Lee Bong-hyo and Moon Jin-young

Departmen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 Pal Hyue Hyul has been mentioned in Nankyông firstly and is a representative acupoint of 8 parts of biological function of human bod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ing out the process of formation of Pal Hyue Hyul.

Methods :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summarized all literatures from Hwangjaenaekyông to the today's papers which refer to Pal Hyue Hyul, and then basing on it, suggested our opinion about the correlation.

Results & Conclusion : The results and conclusions obtained are as follow:

1. Pal Hyue Hyul is based on the Sahae theory of Yôngchu and was formed in 45nan of Nankyông.
2. Although Pal Hyue Hyul has been mentioned in Nankyông firstly, but because even Naekyông shows the quickening of Pal Hyue Hyul theory, the birth of Pal Hyue Hyul was necessary from the viewpoint of studing ambience.
3. About the reason for formation to 8 types, we think that all the biological functions of human body were represented as 8.
4. Pal Hyue theory had been supplemented and completed by annotations of successive medical men, for example the arguement about Golhyue, Suhhyue. And the reason for the extent from the heat disease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논문게재장려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접수 : 2005년 10월 9일 · 수정 : 2005년 11월 18일 · 채택 : 2005년 11월 18일
· 교신저자 : 문진영,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Tel. 054-770-2665 Fax. 054-770-2649 E-mail : ampmoon@mail.dongguk.ac.kr

of the first phase to the associated disease is that it has been useful in the clinical treatment.

5. Because about whether Suhyue is Ch'imgol or Jôlgol, whether Jôlgol is Yangbo(GB38) or Hyônjong(GB39), whether Golhyue is Teacu'u(GV14) or Taejô(BL11) there in no agreement of opinion among the successive medical men, much more study is necessary

Key words : Pal Hyue Hyul, Yôngchu, Sahae, 45nan, Nankyông

I. 緒 論

八會穴은 五俞穴、原穴、絡穴、郄穴、腹募穴、背俞穴、八脈交會穴과 같은 特定穴 中の 하나로서 人體의 臟、腑、氣、血、筋、脈、骨、髓의 8 種류의 精氣가 會聚되는 穴로서 會란 氣가 會合하는 것을 말한다¹⁾.

八會穴의 構成과 經穴名에 대하여 『內經』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難經』·『四十五難』에서 “經言 八會者何也. 然腑會太倉, 臟會季脇, 筋會陽陵泉, 髓會絕骨, 血會膈俞, 骨會大杼, 脈會太淵, 氣會三焦外一筋直兩乳內也. 熱病在內者取其會之氣穴也²⁾.”라 하여 최초로 언급된 이래, 각 鍼灸經穴學 文獻에 간략하게 기재되어 왔다.

한편 八會穴에 대한 研究로서 조³⁾, 박⁴⁾ 등은 八會穴의 臨床活用に 대하여 연구한 결과, 某一方面의 病症은 그 有關會穴을 採用하고 他穴과의 配合에 있어서는 經氣의 引氣役割을 하는 會合穴 즉 主穴로 사용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臨床活用的 側面에서의 研究에 비해 八會穴의 意義와 形成에 대한 研究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難經』과 그 注釋書 外에 八會穴에 대해 언급된 書籍이 많지 않고, 일부 논란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심화발전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臨床醫書에서 많이 다루지 않아 그 實用的 價値가 餘他 特定穴에 비해 다소 적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八會穴 이론의 起源에서 完成까지 그 형성과정의 측면에서 왜 ‘八’인가, ‘會’의 辭典의 意味, 그리고 八會穴의 成立背景 등에 대해 靈樞를 중심으로 研究한 결과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資料 및 放法

본 研究는 黃帝內經으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의 鍼灸經穴學 書籍 및 論文 中 八會穴에 관하여 언급된 文獻을 研究對象으로 삼고 각각의 文獻을 調査 및 要約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 相關關係에 대해 나름대로의 見解를 제시하였다.

III. 本 論

1. 八會穴의 起源

1) 『內經』에서 볼 수 있는 八會 이론의 胎動

여기서는 八會 이론의 成立과 『靈樞』에 나오는 四海 및 五十九刺 이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① 四海에서 발전

『靈樞』·『海論篇』에서는 “人亦有四海, 十二經水, 經水者, 皆注於海, 海有東西南北, 命曰四海. …… 人有髓海, 有血海, 有氣海, 有水穀之海, 凡此四者, 所以應四海也. …… 胃者水穀之海, 其輸上在氣街, 下至三里, 衝脈者, 爲十二經之海, 其輸上在於大杼, 下出於巨虛之上下廉, 膻中者, 爲氣之海, 其輸上在於柱骨之上下, 前在於人迎, 腦爲髓之海, 其輸上在於其蓋, 下在風府. …… 氣海有餘者, 氣滿胸中, 恍惚面赤, 氣海不足, 則氣少不足以言. 血海有餘, 則常想其身大, 怫然不知其所病, 血海不足, 亦常想其身小, 狹然不知其所病. 水穀之海有餘, 則腹滿, 水穀之海不足, 則飢不受穀食. 髓海有餘, 則輕勁多力, 自過其度, 髓海不足, 則腦轉耳鳴, 脛痠眩冒, 目無所見, 懈怠安臥. …… 審守其俞, 而調其虛實, 無犯其害, 順者得復, 逆者必敗⁵⁾”라고 하여 人體에 있는 髓海、血海、氣海、水穀之海의 四海가 자연의 東西南北 四海에 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四海와 八會穴이 髓、血、氣、腑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 『扁鵲脈書難經』에서는 四海와 八會의 관계에 대해 “『難經』·「四十五難」, 專取八會立論, 頗與『內經』四海之意相關, 特于腑中又分出臟會, 血中又分出脈會, 髓中又分出筋會、骨會, 似較『內經』爲更詳, 惟所取氣穴, 多有不合, 且未詳所用⁶⁾”라고 하여 『難經』의 八會穴에 대해 『內經』의 四海 위에 네 가지를 추가하여 더 자세히 만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難經』이 『內經』과 같은 시대 혹은 후대의 著書로서 당시 醫書들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는 책⁷⁻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a. 生理的 측면에서의 비교

『靈樞』·「海論篇」에서는 四海의 生理的 기능에 대해 十二經水가 모이는 곳이며 그 상태가 반영되는 곳이 각각 上下 두 곳씩 있어서 모두 여덟 개의 반응지점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 『難經』·「四十五難」에서는 八會穴에 대해 인체를 구성하는 여덟 가지인 臟、腑、氣、血、筋、脈、骨、髓 각각의 精氣가 모이는 곳⁹⁾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氣、血、髓、腑의 氣運이 모이는 곳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b. 病理的 측면에서의 비교

『靈樞』·「海論篇」에서는 四海에 대해 각각 有餘、不足의 상태일 때 나타나는 病證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반면 『難經』·「四十五難」에서는 오직 熱病만 언급했다.

c. 진단적 측면에서의 비교

『靈樞』·「海論篇」에서는 四海의 진단적 기능에 대해 그 상태가 반영되는 穴을 잘 살펴서 虛實을 조절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 것에 비해 『難經』·「四十五難」에서는 八會穴의 진단적 측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지만 八會穴이 인체를 구성하는 여덟 종류의 精氣가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에서 자연히 진단의 기능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 치료적 측면에서의 비교

『靈樞』·「海論篇」에서는 四海의 치료적 측면에 대해 그 상태가 반영되는 穴에 補瀉의 鍼法을 사용¹⁰⁾하여 虛實을 조절¹¹⁾하는 치료기능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難經』·「四十五難」에서는 八會穴의 치료기능에 대해 熱病이 人體 내부에 있을 때 여덟 가지 구

성부분 중 어느 영역의 病變인가 보고 그 영역의 精氣가 모이는 穴을 取한다고 말하고 있다.

e. 공통점과 差異點

이상의 비교에서 『靈樞』와 『難經』모두, 四海와 八會穴에 대해 인체를 구성하는 네 가지 또는 여덟 가지 종류로 바라본 공통점이 있으나, 『靈樞』에서는 四海를 인체의 精氣가 모이는 곳으로 보고 그 상태가 반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따로 氣街、三里、大杼、巨虛之上下廉、柱骨之上下、人迎、其蓋、風府의 여덟 곳을 설정한데 비해 『難經』에서는 두 가지 概念을 따로 區分하지 않고 八會穴에 대해서 인체를 구성하는 여덟 가지 종류의 상태가 나타나는 穴로 인식했고 前者에서는 上下 두 개의 反應點이 있으나 後者에서는 단지 한 개의 反應點만 설정되었다는 差異點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② 五十九刺에서 발전

a. 五十九刺의 내용

五十九刺란 熱病 치료에 사용하는 59 개의 穴¹²⁻¹⁴⁾로서 그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穴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素問』의 五十九刺와 『靈樞』의 五十九刺로 나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八會穴과 관련되는 後者만 다루기로 하겠다.

『靈樞』·「熱病篇」

所謂五十九刺 兩手外內側各三凡十二瘡 五指間各一凡八瘡足亦如是 頭入髮一寸旁三分各三凡六瘡 更入髮三寸邊五凡十瘡 耳前後口下者各一項中一凡六瘡 巔上一聰會一髮際一廉泉一風池二天柱二¹⁵⁻¹⁶⁾

b. 主治 病症 上에서 살펴 본 八會穴과 五十九刺의 공통점

『靈樞』·「熱病篇」에서는 “熱病先膚痛, 窒鼻充面, 取之皮, 以第一鍼, 五十九, 苛軫鼻, 索皮於肺, 不得, 索之火, 火者心也. 熱病先身澁倚而熱, 煩俛, 乾唇口溢, 取之皮, 以第一鍼, 五十九, 膚脹口乾, 寒汗出, 索脈於心, 不得, 索之水, 水者腎也. 熱病溢乾多飲, 善驚, 臥不能起, 取之膚肉, 以第六鍼, 五十九, 目眇青, 索肉於脾, 不得, 索之木, 木者肝也. …… 熱病身重骨痛, 耳聾而好嘔, 取之骨, 以第四鍼, 五十九, 刺骨, 病不食, 齧齒耳青, 索骨於腎, 不得, 索之土, 土者脾也¹⁷⁾.”라고 하여 각종 熱病 중에서도 특히 皮、肉、脈、骨의 熱病에 대해서 五十九刺의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¹⁸⁾.

그런데 이 熱病은 五臟의 이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五臟에서 그 치료의 근본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五十九刺의 適應症이 五臟의 이상에 의한 內熱임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內熱로 인해 皮、肉、脈、骨에 熱象이 나타날 때 五十九刺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八會穴과 五十九刺의 主治 病症이 內熱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c. 八會穴과 五十九刺의 차이점

7. 八會穴의 臟、腑、氣、血、筋、脈、骨、髓와 五十九刺의 皮、肉、脈、骨을 비교해 보면 八會穴에는 五十九刺의 皮、肉、脈、骨에서 皮、肉이 빠지고 臟、腑、氣、血、筋、髓가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五十九刺가 皮、肉、脈、骨에 熱病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八會穴은 臟、腑、氣、血、筋、脈、骨、髓에 熱病이 있을 때 사용하므로 그 범위가 더 넓다.

8. 또 刺鍼하는 穴을 살펴 보면 『難經』·『四十五難』에서는 八會에 대해 각각 한 개씩의 穴을 그 會穴로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靈樞』에서는 皮、肉、脈、骨에 熱病이 있을 때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穴에 鍼刺하는지 밝히지 않고 단지 五十九刺에서 선택하여 取한다고만 말하고 있다.

2) 內經 外의 古代醫書로부터의 발전

『四十五難』 처음에 “經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經”이 어느 서적을 가리키는 것인지 지금은 알 수 없다. 다만 『難經』과 같은 시대 또는 그 以前 시대의 저서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前漢書』·『卷三十藝文志醫經類』에 보면 黃帝內經·外經、扁鵲難經·外經、白氏內經·外經·旁經 등의 醫書들이 당시에 존재했다. 그러므로 八會穴의 최초 記錄書는 前述한 서적들 혹은 기타 醫史에 기재되지 않은 醫書들 중 하나인 것으로 思慮된다¹⁹⁻²¹⁾.

3) 八會의 構成에 관한 考察

八會穴이라는 것은 인체를 구성하는 8 가지 기능적 기본 요소에 熱證의 病變이 발생했을 때 각각에 대하여 진단 및 치료의 기능이 있는 8 개의 穴이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有機的 全一體인 人體를 8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熱證의 病變도 그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會穴에 鍼刺한다는 뜻이다. 논자는

이에 대해 여러 醫家의 說과 書籍을 찾아 보았지만 그 원리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는 곳이 없어 나름대로의 見解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① “會”字의 辭典的 의미

『說文解字』에 보면 “器之蓋曰會 爲其上下相合也.”²²⁾라 하여 덮개를 덮듯이 上下로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이보다 후대에 나온 『辭源』에 보면 “聚合、匯合”의 뜻이라 했고²³⁾, 『中醫經典字典』과 『漢韓辭典』에도 “集合、匯集”²⁴⁾ 및 “모이다, 모으다, 합치다”²⁵⁾라는 의미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八會穴이란 臟、腑、氣、血、筋、脈、骨、髓의 기운이 모이는 각각의 穴을 지칭하는 뜻이 된다.

② 왜 臟、腑、氣、血、筋、脈、骨、髓인가?

먼저 말해 두고자 하는 것은 人體를 구성하는 8 가지 요소가 器質的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機能的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서양의학의 해부학적 관점에서 보아 8 가지 중요한 구조물을 골라낸 것이 아니라 機能을 중시하는 한의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인체의 생명현상을 8 가지의 기능으로 크게 나눈 것이 바로 臟、腑、氣、血、筋、脈、骨、髓이다.

그런데 그 여덟 가지가 왜 臟、腑、氣、血、筋、脈、骨、髓인가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하여 臟、腑、氣、血、筋、脈、骨、髓 外에 가능한 會穴로서 皮會、肉會、神會、精會 및 奇恒之府의 會穴을 생각해 보았다.

a. 皮會、肉會가 빠진 이유

皮、肉은 筋、脈、骨과 함께 五體에 속하는 것이고 生理的 상황에서 外邪에 대한 1·2차 방어선이자 病理的 상황에서 外邪가 침입하는 경로이기도 하다. 皮會、肉會는 왜 설정되지 않은 것인가? 그 이유는 原文에서 “熱病在內者”라고 규정했으므로 “外”에 해당하는 皮、肉은 제외되었을 것으로 思慮된다.

b. 奇恒之腑의 會가 빠진 이유

奇恒之腑란 형태는 腑이면서 臟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腑로서 六府와 마찬가지로 腑이므로 奇恒之腑의 會는 모두 腑會에 포함되어 있다.

c. 神會、精會가 빠진 이유

神會、精會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 氣會、血會에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氣、血、神、精은 각각 肺、肝、心、腎이 藏하고 있는 것²⁶⁾인데 氣血이란 精神의 작용이 나타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氣血의 변화에 의해 精神의 기능이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內經』·『陰陽應象大論』에서 “左右者陰陽之道路也, 水火者陰陽之徵兆也²⁷⁾”라고 하여 사람의 生死를 결정짓는 精神의 작용은 실제로 氣血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발현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精神作用을 實質臟器인 五臟에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는 韓醫學의 독특한 인체관²⁸⁾에서 볼 때도 精과 神의 상태는 실질적인 物質인 氣와 血에 반영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神會、精會는 氣會、血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2. 八會穴의 完成

前述한 바와 같이 八會 이론이 形成되어 八會穴이 설정되었지만 여기에는 『扁鵲脈書難經』에서 “所取其穴 多有不合 且未詳所用”이라 지적한 것과 같이 몇 가지의 不足한 점이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해 歷代醫家들이 注釋을 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八會 이론이 완성되어졌다. 本 論文에서는 이 중 主治病證의 擴大와 骨會、髓會穴의 설정에 대한 異見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主治病證의 擴大

과연 八會穴은 “熱病在內者”에만 應用할 수 있는가? “熱病”이란 단어에 다른 뜻이 內包되지는 않았는가? 宋代 候自然은 그의 저서 『難經注疏』에서 “骨病治此”, “髓病治此”, “脈病治此”라고 하여 八會穴의 主治病證을 熱病에서 인체의 8 가지 구성요소의 모든 병으로 擴大시켰고²⁹⁾ 이후의 의가들도 모두 그의 의견에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傷寒論』의 理、法、方、藥이 모든 질환의 準繩이 되듯이 熱病이란 인체의 8 가지 구성요소에 관련된 모든 병의 代名詞인 것이며, 따라서 宋代 候自然이 「四十五難」을 올바르게 해석함으로써 八會穴의 완성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思慮된다.

2) 骨會、髓會穴의 설정에 대한 異見

아직까지 統一된 定說이 없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骨會

a. 骨會大杼論

ㄱ. 大杼는 項後 第 1椎下 兩方 各 1寸5分이다. 骨은 髓가 營養하는데, 髓는 腦에서 아래로 내려가 大杼에 모인다. 大杼에서 脊椎로 滲入하여 中心을 관통해서 尾骨을 지나 모든 骨節에 滲入되므로 骨의 氣는 여기에 모인다³⁰⁻³³⁾.

ㄴ. 大杼는 足太陽膀胱經에 속하며 腎과 膀胱은 서로 表裏가 된다. 腎主骨生髓 髓上聚于腦하고 腦의 아래로 灌注할 때에 우선 大杼穴을 지나게 된다. 또한 大杼穴은 柱骨之根에 가까우며 脊柱骨은 인체의 중요한 지탱골격이다. 따라서 大杼는 骨의 會穴이다³⁴⁾.

ㄷ. 大杼는 足太陽에 속하며 項後 第 1椎下 兩方 1寸5分이다. 『靈樞』·『海論』에서는 “衝脉은 十一經의 海이며 그 輪은 大杼에 있다.”고 했고, 『動輪論』에서는 “衝脉과 腎의 大絡은 腎下에서 기원한다.”고 했다. 腎은 主骨하고, 膀胱과 表裏相合하므로 骨會가 된다³⁵⁻³⁸⁾.

ㄹ. 骨은 礦物質과 膠質로 구성되어 있고 髓가 그 안에 가득차 있다. 大杼가 위치한 項後 第 1椎로 속칭 天柱骨이라 하며, 勞損病者는 天柱骨이 휘고 온몸의 골격에 痿證이 온다. 따라서 骨會는 大杼이다³⁹⁾.

b. 骨會大椎論

많은 醫家들이 주장했고⁴⁰⁻⁴³⁾, 심지어는 兩者를 구분하지 않고 混用하기도 한다⁴⁴⁾.

참고로 椎字는 高等動物의 背部中央脊柱를 구성하는 작은 뼈를 말하며, 杼字는 第 1椎骨을 말한다⁴⁵⁻⁴⁶⁾.

② 髓會

a. 髓會絕骨論

ㄱ. 絕骨은 膽經의 腧穴이다. 肝膽은 서로 表裏이고 肝腎은 同源이다. 腎主骨生髓, 髓藏于骨하며 養骨한다. 元代 滑伯仁은 『難經本義』에서 “諸髓皆屬於骨”이라 하였다. 또한 膽主骨, 骨生髓하므로 絕骨은 髓의 會穴이다⁴⁷⁻⁴⁹⁾.

ㄴ. 또 絕骨은 足少陽의 經穴이다. 『靈樞』·『經脈篇』에서 足少陽脈은 主骨한다 했고 髓는 모두 骨에 속하므로 髓會는 絕骨이다⁵⁰⁾.

b. 絕骨陽輔論

髓會가 絕骨인 것은 맞지만, 絕骨은 懸鍾이 아닌 陽輔이라는 주장이다⁵¹⁻⁵²⁾.

c. 髓會枕骨論

이는 元代 滑伯仁이 『難經本義』에서 四明陳의 說을 인용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 내용인 즉 “髓會는 絕骨이라 했는데. 髓는 腎에 속하고. 腎은 骨을 主한다. 이는 足少陽과 무관하다. 腦는 髓海이며 腦에는 枕骨穴이 있으니, 마땅히 枕骨이지 絶骨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여, 難經을 비판했다⁵³⁻⁵⁷⁾.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분은 定說이 확립되지 못하였고 특히 髓會絶骨論은 기존의 說에서 탈피하여 原典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고 思慮된다.

IV. 考 察

八會穴이란 人體의 臟、腑、氣、血、筋、脈、骨、髓의 8 종류의 精氣가 會聚되는 穴을 말하는 것으로 某一方面의 病症에 속하는 것은 그 有關會穴을 採用하게 되는 것이다. 즉 臟病에 속할 때에는 먼저 臟會인 章門을 응용하고 계속해서 他穴을 사용하며, 腑病에 속할 때에는 먼저 腑會인 中脘을 응용하고 계속해서 他穴을 사용한다. 또 氣의 異常과 有病時에는 氣會인 膻中을 먼저 응용하고 계속해서 他穴을 응용하며, 血의 異常과 有病時에는 血會인 膈俞를 먼저 응용하고 계속해서 他穴을 응용한다. 또 筋의 異常과 有病時에는 筋會인 陽陵泉을 먼저 응용하고 계속해서 他穴을 응용하며, 脈의 異常과 有病時에는 脈會인 太淵을 먼저 응용하고 계속해서 他穴을 응용한다. 또 骨의 異常과 有病時에는 骨會인 大杼를 먼저 응용하고 계속해서 他穴을 응용하며, 髓의 異常과 有病時에는 髓會인 懸鍾을 먼저 응용하고 계속해서 他穴을 응용하는 것으로 八會穴은 臨床活用に 있어서 要穴이 된다⁵⁸⁾. 뿐만 아니라 八會穴과 他穴의 配合에 있어서는 八會穴이 經氣의 引氣役割을 하는 會合穴, 즉 主穴로 사용된다.

八會穴은 『靈樞』·「海論篇」에서 “人亦有四海, 十二經水. 經水者, 皆注於海, 海有東西南北, 命曰四海. …… 人有髓海, 有血海, 有氣海, 有水穀之海, 凡此四者, 所以應四海也. …… 胃者水穀之海, 其輸上在氣街, 下至三里, 衝脈者, 爲十二經之海, 其輸上在於大杼, 下出於巨虛之上下廉, 膻中者, 爲氣之海, 其輸上在於柱骨之上下, 前在於人迎, 腦爲髓之海, 其輸上在於其蓋,

下在風府. …… 氣海有餘者, 氣滿胸中, 怵息面赤, 氣海不足, 則氣少不足以言. 血海有餘, 則常想其身大, 怫然不知其所病, 血海不足, 亦常想其身小, 狹然不知其所病. 水穀之海有餘, 則腹滿, 水穀之海不足, 則飢不受穀食. 髓海有餘, 則輕勁多力, 自過其度, 髓海不足, 則腦轉耳鳴, 脛痠眩暈, 目無所見, 懈怠安臥. …… 審守其俞, 而調其虛實, 無犯其害, 順者得復, 逆者必敗⁵⁹⁾”라고 하여 人體에 있는 髓海、血海、氣海、水穀之海의 四海가 自然의 東西南北 四海에 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이론적 바탕으로 胎動하여 『難經』·「四十五難」에서 八會穴로 成立되었는데, 四海와 八會穴이 髓、血、氣、腑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扁鵲脈書難經』에서는 四海와 八會의 관계에 대해 “『難經』·「四十五難專取八會立論, 頗與『內經』四海之意相關, 特于腑中又分出臟會, 血中又分出脈會, 髓中又分出筋會、骨會, 似較『內經』爲更詳, 惟所取氣穴, 多有不合, 且未詳所用⁶⁰⁾”라고 하여 『難經』의 八會穴에 대해 『內經』의 四海 위에 네 가지를 추가하여 더 자세히 만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靈樞』·「熱病篇」에서는 “熱病先膚痛, 窒鼻充面, 取之皮, 以第一鍼, 五十九, 苛軫鼻, 索皮於肺, 不得, 索之火, 火者心也. 熱病先身澁倚而熱, 煩惋, 乾脣口溢, 取之皮, 以第一鍼, 五十九, 膚張口乾, 寒汗出, 索脈於心, 不得, 索之水, 水者腎也. 熱病溢乾多飲, 善驚, 臥不能起, 取之膚肉, 以第六鍼, 五十九, 目眇青, 索肉於脾, 不得, 索之木, 木者肝也. …… 熱病身重骨痛, 耳聾而好瞑, 取之骨, 以第四鍼, 五十九, 刺骨, 病不食, 齧齒耳青, 索骨於腎, 不得, 索之土, 土者脾也⁶¹⁾.”라고 하여 각종 熱病 중에서도 특히 皮、肉、脈、骨의 熱病에 대해서 五十九刺의 治療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⁶²⁾, 이 熱病은 五臟의 異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五臟에서 그 治療의 근본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五十九刺의 適應症이 五臟의 異常에 의한 內熱임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內熱로 인해 皮、肉、脈、骨에 熱象이 나타날 때 五十九刺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八會穴과 五十九刺의 主治 病症이 內熱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八會穴의 臟、腑、氣、血、筋、脈、骨、髓와 五十九刺의 皮、肉、脈、骨을 비교해 보면 八會穴에는 五十九刺의 皮、肉、脈、骨에서 皮、肉이 빠지고 臟、腑、氣、血、筋、髓가 추가되어 있어 五十九刺가 皮、肉、脈、骨에 熱病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八會穴은 臟、腑、氣、血、筋、

脈、骨、髓에 熱病이 있을 때 사용하므로 그 범위가 더 넓고, 또 刺鍼하는 穴을 살펴 보면 『難經』·『四十五難』에서는 八會에 대해 각각 한 개씩의 穴을 그 會穴로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靈樞』에서는 皮、肉、脈、骨에 熱病이 있을 때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穴에 鍼刺하는지 밝히지 않고 단지 五十九刺에서 선택하여 取한다고만 말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八會穴은 人體를 구성하는 8 가지 요소로서 器質的인 측면이 아닌 機能的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며, 서양의학의 해부학적 관점에서 보아 8 가지 중요한 구조물을 골라낸 것이 아니라 機能을 중시하는 한의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인체의 생명현상을 대표하는 臟、腑、氣、血、筋、脈、骨、髓의 8 가지 기능으로 크게 나눈 개념이다.

또 其他의 會穴이 설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펴 보면 먼저 皮、肉은 筋、脈、骨과 함께 五體에 속하는 것이고 生理的 상황에서 外邪에 대한 1·2차 방어선이자 病理的 상황에서 外邪가 침입하는 경로이기도 한데 皮會、肉會는 설정되지 않은 이유는 原文에서 “熱病在內者”라고 규정했으므로 “外”에 해당하는 皮、肉은 제외되었을 것으로 思慮된다. 또 奇恒之腑의 會穴이 빠진 것은 奇恒之腑란 형태는 腑이면서 臟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腑로서 六府와 마찬가지로 腑이므로 奇恒之腑의 會는 모두 腑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神會、精會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 氣會、血會에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氣、血、神、精은 각각 肺、肝、心、腎이 藏하고 있는 것⁶³⁾인데 氣血이란 精神의 작용이 나타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氣血의 변화에 의해 精神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內經』·『陰陽應象大論』에서 “左右者陰陽之道路也, 水火者陰陽之徵兆也⁶⁴⁾”라고 하여 사람의 生死를 결정짓는 精神의 작용은 실제로 氣血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발휘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精神作用을 實質臟器인 五臟에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는 韓醫學의 독특한 인체관⁶⁵⁾에서 볼 때도 精과 神의 상태는 실질적인 物質인 氣와 血에 반영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神會、精會는 氣會、血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八會穴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臟會、腑會、氣會、血會、筋會、脈會에 대해서는 역대 의가들의 이견이 없었으나, 骨會와 髓會는 歷代 醫家들의 見解가 一致되지 않고 紛紛하였는데, 骨會에 대해서는 大杼라

는 王一仁、澤壽 등의 주장과 大椎라는 黃元御、高武、丁錦、滕萬卿 등의 주장으로 나뉘었으며 심지어는 兩者를 구분하지 않고 混用하기도 했고⁶⁶⁾, 髓會에 대해서는 絕骨이라는 王澤壽、丁錦、王一仁、唐湘清 등의 주장과 髓會가 絕骨인 것은 맞지만 絕骨은 懸鍾이 아닌 陽輔라는 高武、陳夢雷 등의 주장, 그리고 髓會는 腦에 있는 枕骨이라는 潘伯仁의 주장으로 엇갈려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思慮된다.

V. 結 論

八會穴의 形成에 대해 文獻的 考察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八會穴은 『靈樞』·『海論篇』의 四海를 이론적 바탕으로 胎動하여 『難經』·『四十五難』에서 八會穴로 成立되었다.
2. 八會穴은 『難經』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지만 『內經』에서도 그 이론적 胎動을 볼 수 있었으므로 당시의 학문분위기상 八會穴의 탄생은 必然的이었다.
3. 왜 八會인가에 대해서는 人體의 모든 機能的 側面을 臟、腑、氣、血、筋、脈、骨、髓의 8 個로 압축한 것으로 思慮된다.
4. 八會 이론은 骨會、髓會에 대한 爭論과 候自然의 『難經注疏』에서 제시한 主治病症의 擴大 등과 같은 歷代醫家들의 注釋에 의해 補充·完成되었으며, 初期의 熱病으로부터 有關病症으로 擴大된 것에 대해 反論이 없는 이유는 臨床上 效驗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思慮다.
5. 髓會가 枕骨인지 絕骨인지, 絕骨이 陽輔인지 懸鍾인지, 骨會가 大椎인지 大杼인지에 대해서는 歷代醫家들의 見解가 일치되지 않아 앞으로 더 많은 研究가 필요한 것으로 思慮된다.

VI. 參考文獻

1. 全國韓醫科大學鍼灸經穴學教室 : 鍼灸學(上),

- 서울, 集文堂, 1993. p. 200.
2. 凌耀星：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p. 81.
 3. 趙吉平：中醫臨床, 千葉, 東洋學術出版社, 1993, pp. 74-76.
 4. 박태균 外：惠和醫學, 大田, 大田大學校附屬韓方病院, 1995, pp. 189-250.
 5. 楊維傑：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一中社, 1991, pp. 280-283.
 6. 康鎖彬 外：中國鍼灸通釋經脈腧穴學,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5, p. 272.
 7. 金賢濟 外：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91, p. 618.
 8. 凌耀星：前揭書, p. 1.
 9. 凌耀星：前揭書, pp. 80-81.
 10. 楊維傑：前揭書, p. 283.
 11. 張介賓：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212.
 12. 楊維傑：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260 「刺熱論」, “熱病先胸脇痛, 手足躁, 刺足少陽, 補足太陰. 病甚者爲五十九刺.”
 13. 楊維傑：前揭書, pp. 411-413 「氣穴論」, “臟俞五十穴, 腑俞七十二穴, 熱俞五十九穴, 水俞五十七穴.”
 14. 楊維傑：前揭書, p. 203 「四時氣」, “溫瘧汗不出, 爲五十九疔.”
 15. 楊維傑：前揭書, p. 231.
 16. 穴名을 명확하게 언급한 곳은 廉泉、風池、天柱 뿐이고 대부분은 어디에 있는 穴이라고만 하였는데, 그 經文에 대한 諸家の 注解가 일치하지 않는다. 논자는 馬蒔、張志聰、黃元御、楊維傑의 注解를 위주로 살펴 보았다(上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하고 의견이 같다는 것을 뜻한다).
- ㄱ. 兩手外內側各三
馬蒔：少澤、關衝、商陽、魚際、中衝、少衝
張志聰：少澤、關衝、商陽、少商、中衝、少衝
黃元御：上同
楊維傑：上同
- ㄴ. 五指間各一
馬蒔：後谿、中渚、三間、少府
張志聰：上同
黃元御：上同
楊維傑：上同
- ㄷ. 足亦如是
馬蒔：束骨、足臨泣、陷谷、太白
張志聰：上同
- 黃元御：上同
楊維傑：上同
- ㄹ. 頭入髮一寸旁三分各三
馬蒔：五處、承光、通天
張志聰：上同
黃元御：上同
楊維傑：上同
- ㅁ. 更入髮三寸邊五
馬蒔：頭臨泣、目窓、正營、承靈、腦空
張志聰：上同
黃元御：上同
楊維傑：上同
- ㅂ. 耳前
馬蒔：聽會
張志聰：和髎
黃元御：聽會
楊維傑：上同
- ㅅ. 耳後
馬蒔：完骨
張志聰：浮白
黃元御：完骨
楊維傑：上同
- ㅇ. 口下
馬蒔：承漿
張志聰：上同
黃元御：上同
楊維傑：上同
- ㅆ. 項中
馬蒔：風府
張志聰：大椎
黃元御：瘡門
楊維傑：上同
- ㅈ. 巔頂
馬蒔：百會
張志聰：上同
黃元御：上同
楊維傑：上同
- ㄷ. 聽會
馬蒔：顛會
張志聰：上聲
黃元御：顛會
楊維傑：聽會
- ㅊ. 前髮際
馬蒔：神庭

- 張志聰：上同
 黃元御：上同
 楊維傑：上同
- ㄱ. 後髮際
 馬蒔：風府
 張志聰；上同
 黃元御：上同
 楊維傑：上同
17. 楊維傑：前揭書, pp. 226-229.
 18. 楊維傑：前揭書, p. 225.
 19. 唐湘清：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83, p. 182.
 20. 江詒庵 外：徐靈胎醫書全集難經經釋, 臺北, 五洲出版社, 1981, p. 33.
 21. 葉子雨：珍本醫書集成第1冊醫經類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 83.
 22. 段玉裁：說文解字注, 影印本, 大星文化社, p. 223.
 23. 吳澤炎 外：辭源縮印合訂本, 홍콩, 商務印書館, 1979, p. 795.
 24. 劉世昌 外：中醫經典字典, 홍콩, 三聯書店, 1990, p. 72.
 25. 東亞出版社編輯局：東亞漢韓辭典, 서울, 東亞出版社, 1991, p. 900.
 26. 楊維傑：前揭書, pp. 88-89 “肝藏血, 血舍魂, ……; 心藏脈, 脈舍神, ……; 肺藏氣, 氣舍魄, ……; 腎藏精, 精舍志.”
 27. 楊維傑：前揭書, p. 52.
 28. 金相孝：東醫神經精神科學, 서울, 행림출판, 1996, p. 43.
 29. 宋. 候自然이 최초로 그의 著書인 『難經注疏』에서 언급하였다. 『鍼灸聚英』등의 서적에서 八會穴과 관련된 내용 중 “疏曰”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책을 인용한 것이다.
 30.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鍼灸醫學典籍大系難經本義十四經發揮,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9, p. 147.
 31. 丁錦：珍本醫書集成第1冊醫經類古本難經闡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 47.
 32. 滕萬卿：珍本醫書集成第1冊醫經類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 40.
 33. 陳夢雷 外：醫部全錄4,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49.
 34. 王澤濤：遼寧中醫雜誌 第22卷 第3期, 遼寧, 遼寧中醫學院, 1995(3月), p. 133.
 35. 江忍庵 外：前揭書, p. 33.
 36. 唐湘清：前揭書, p. 183.
 37. 葉子雨：前揭書, p. 82.
 38.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前揭書, p. 147.
 39. 王一仁：難經讀本, 臺北, 中國醫學叢書, 1973, p. 86.
 40. 丁錦：前揭書, p. 47.
 41. 滕萬卿：前揭書, p. 40.
 42. 黃元御：黃元御醫書十一種(上)靈樞懸解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 655.
 43. 高武：鍼灸聚英,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 60.
 44. 李挺：編註醫學入門內集卷1,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02.
 45. 劉世昌 外：中醫經典字典, 홍콩, 三聯書店, 1990, pp. 250-251.
 46. 丁錦：古本難經闡註珍本醫書集成第1冊醫經類,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 46.
 47. 王澤濤：前揭雜誌, p. 133.
 48. 丁錦：前揭書, p. 47.
 49. 王一仁：前揭書, pp. 85-86.
 50. 唐湘清：前揭書, pp. 182-183.
 51. 高武：前揭書, p. 60.
 52. 陳夢雷 外：前揭書, p. 49.
 53.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前揭書, p. 147.
 54. 滕萬卿：前揭書, p. 40.
 55. 唐湘清：前揭書, pp. 182-183.
 56. 陳夢雷 外：前揭書, p. 49.
 57. 葉子雨：前揭書, p. 82.
 58. 全國韓醫科大學鍼灸經穴學教室：前揭書, p. 200.
 59. 楊維傑：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一中社, 1991, pp. 280-283.
 60. 康鎖彬 外：中國鍼灸通釋經脈腧穴學,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5, p. 272.
 61. 楊維傑：前揭書, pp. 226-229.
 62. 楊維傑：前揭書, p. 225.
 63. 楊維傑：前揭書, pp. 88-89 “肝藏血, 血舍魂, ……; 心藏脈, 脈舍神, ……; 肺藏氣, 氣舍魄, ……; 腎藏精, 精舍志.”
 64. 楊維傑：前揭書, p. 52.
 65. 金相孝：東醫神經精神科學, 서울, 행림출판, 1996, p. 43.
 66. 李挺：編註醫學入門內集卷1,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302.